



3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IA와 키움의 경기가 비로 취소됐다.

〈KIA 타이거즈 제공〉



### ‘롯데 쇼크’ 등 11승 1무 12패 ‘잇고 싶은 6월’ 마운드 붕괴·부상자 속출... 우승 행보 ‘빨간불’ 이범호 감독 “DH 우천취소 다행... 삼성전 총력”

‘호랑이 군단’의 6월이 아쉬움 속에서 ‘-1로’ 마무리됐다. KIA 타이거즈가 지난 3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키움 히어로즈와의 더블헤더 1·2차전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면서 6월을 11승 1무 12패로 마무리했다. 29일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30일 더블헤더가 예정됐지만 굵은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두 경기가 모두 취소됐다. 3·4월 21승 10패, 5월 13승 1무 11패의 전적을 기록했던 KIA는 6월에는 적자 살림을 기록했다. 시작과 끝에 롯데가 있었다. KIA는 6월 1일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만원 관중 앞에서 5-2 승리를 거두고, 승리로 6월을 열었다. 하지만 2일 경기에서 2-11 대패를 기록한 KIA는 이어진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에서 연달아 패배를 기록하면서 3연패에 빠졌다. 앞선 사직 원정까지 포함하면 롯데전 5연패이기도 했다. 아쉬웠던 6월 시작, 마무리는 더 좋지 못했다. 6월 마지막 원정지였던 사직에서 충격적인 결과

가 이어졌다. 25일 롯데전에서 4회까지 14점을 폭발하고도 믿었던 제임스 네일을 시작으로 마운드가 흔들리면서 충격적인 15-15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5시간 20분 연장 혈투를 펼쳤던 KIA는 26일에도 불펜진의 난조로 4-6 역전패를 당했고, 27일에는 2-11의 일방적인 패배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사직 전적이 1무 5패가 됐다. 결과도 결과지만 마운드가 붕괴되는 등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우승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에 사직에서 부상 선수도 발생했다. 27일 경기에서 내야안타를 기록했던 이우성이 허벅지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교체됐었고, 겸진 결과 우측 햄스트링 힘줄 손상 판정을 받았다. 2주 후 재검진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거운 분위기 속으로 돌아온 KIA는 28일 키움전에서 마운드가 난타를 당하면서 6-17 대패를 기록했다. KIA는 결국 분위기 쇄신을 위해 손승락 퓨처스 감독과 진갑용 수석코치의 자리를 바꾸는 인사도

단행했다. ‘6월 고만’을 남긴 KIA는 총체적으로 팀을 돌아보고 장기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범호 감독은 30일 “보통 6월에 팀 성적이 안 좋았다. 4·5월 좋다가 6월 안 좋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면서 갔는데, 생각보다는 잘 마친 것 같지만 이번 주에 힘든 경기를 했다”며 “우리 선수들 6월에 집중도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안 좋았다. 장거리 이동이 잦던, 운영이 잦던 모든 것을 체크하면서 6월 성적이 좋아지게 바꿀 수 있도록 가야 한다. 6월 시기를 어떻게 넘겨갈지 항상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사직 쇼크’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KIA는 6월 마지막날 반가운 비를 만났다. 비로 더블헤더 일정이 모두 취소되면서 휴식을 갖고 앞선 패배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여기에 7월 2일부터 진행되는 전반기 마지막 일정이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3연전에서 총력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 KIA는 삼성전 총력전으로 최대한 승수를 쌓아, 후반기 새출발을 위한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비로 연달아 경기를 쉬면서 타자들의 타격감이 격정적이지만, 현재 KIA의 가장 큰 약점은 ‘마운드’이다. 투수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되면서 삼성과의 3연전에서 마운드 총력전이 가능하다. 팔꿈치 저리 증상으로 빠졌던 양현종의 복귀전 날짜는 미정이다. 양현종은 29일 키움전 등판을 준비했지만 비가 내리면서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고, 30

일 더블헤더까지 취소되면서 복귀전이 미뤄졌다. 고만은 전반기 마지막 일정이 ‘대구’라는 점이 다. 대구 삼성에 약했던 만큼 부상에서 돌아온 양현종의 투입 여부와 시점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범호 감독은 “6월 한 달 김도영이 워낙 좋은 성적을 냈지만 다들 타순에서 고르게 능력치를 보여

줬다. 6월을 이 정도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심에서 타점 많이 올려줬고, 출루하는 선수들이 잘 나가줬기 때문이다”며 “투수에서 내일, 양현종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4·5번 자리에서 운영철, 황동하가 잘 버텨줘서 6월을 나쁘지 않게 보냈다. 전체 선수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 KIA 분위기 쇄신...손승락 수석코치 임명

‘사직 쇼크’로 우승 질주에 제동이 걸린 KIA가 수석코치 변경으로 분위기 쇄신을 나선다. KIA 타이거즈가 지난 29일 손승락(사진) 퓨처스 감독을 수석코치로 보직 변경했다. 진갑용 수석코치는 퓨처스 감독으로 이동해 선수 육성에 나선다. 지난 5월 롯데와의 원정 시리즈에서 시즌 첫 3연패를 당했던 KIA는 앞선 25일 사직 원정에서도 14-1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연장 12회 승부 끝에 15-15 무승부를 기록했다. 총력의 무승부 이후 펼친 두 경기에서도 모두 롯데에 패한 KIA는 마무리 정해영의 이탈 등과 맞물려 28일 키움과의 홈경기에서도 6-17 대패를 당했다. 마운드발 위기로 총체적 난공에 빠진 KIA는 코칭스태프 변화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게 됐다.

손승락 수석코치는 현대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넥센, 롯데를 거쳐 2019시즌까지 통산 271세이브를 기록했다. 손승락 수석코치는 2022년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로 KIA에 합류한 뒤 미국 LA 다저스 메이저리그 캠프 코치 연수에 참여했고, 2023시즌부터는 KIA 퓨처스팀 감독을 맡아 팀을 이끌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수 발굴과 육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그는 마운드 위기를 맞은 1군에 합류, 수석코치로 KIA의 우승 행보에 힘을 보태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화순군청 임애지 “빨리 파리 올림픽 즐기고 싶다”



임애지(왼쪽)가 2024 파리올림픽 복싱 2차 세계예선대회 여자 54kg급 8강에서 아제르바이잔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며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심판이 경기 끝나고 임애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2024 파리올림픽 홈페이지 캡처>

### 한국 여자 복서 첫 올림픽 메달 도전 “몸 상태 회복 집중”

화순군청 임애지(26)가 파리 올림픽에서의 빛나는 활약을 예고했다. 도쿄에서 올림픽 첫 무대를 밟았던 임애지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여성 복서 최초 올림픽 메달’이라는 ‘새 역사’에 도전한다. “빨리 파리에서 올림픽을 즐기고 싶다”는 마음을 전한 임애지는 부담감이 많았던 3년 전과 달리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임애지는 “처음 올림픽에 나갔을 때는 너무 부담감이 커서 ‘잘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잘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되게 무섭더라. 그때 대학생 4학년이어서 진로의 갈림길이기도 했다”고 당시 심정을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도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때보다는 덜하다. 그리고 스스로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된 것 같다. 특히 이번 쿼터 때는 내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생각보다 내 기쁨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다. 예전에 비해 선수로서의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시합에 더 잘 임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다”고 전보다 단단해진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 했다. 2017년 국제복싱연맹(AIBA) 세계유스여자 선수권대회 60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임애지는 ‘한국 여자 복싱 최초 세계 대회 금메달리스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임애지의 복싱 인생은 우연히 마주한 한 대회를 계기로 시작했다. “화순에서 열린 군수배 대회를 지나가다 우연히 보고 그때 여자 선수가 복싱하는 걸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엄마께 하고 싶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다”며 “오려야 안 된다고 하나까 더 하고 싶어졌다. 그렇게 복싱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시작한 복싱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제가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서 복싱이 직업이 된 순간이 정말 뿌듯했다”고 전했다. 자신을 “복싱을 좋아하는 마음은 큰 선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임애지는 “나는 뭔가가 잘 안 풀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생각하면서 답을 내고 싶어 한다. ‘오늘 이렇게 맞은 걸 내일은 절대 똑같은 안 맞아야지’하고 바로 실행하는 걸 좋아한다. 원하는 기술을 성공하기 위해서 상대를 속이기를 반복했다가 그걸 성공했을 때 쾌감이 있다. 하나하나 퀘스트처럼 깨어나는 성취감을 즐기면서 복싱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임애지는 어깨 등 몸상태 회복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임애지는 “힘든 상황도 찾아오지만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에 집중하며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장점을 더 극대화해 좋은 모습 보여 주는 게 목표다”고 밝혔다. 임애지는 지난 6월 2일 태극 방콕에서 개최된 2024 파리올림픽 복싱 2차 세계예선대회(WQT) 여자 54kg급 8강에서 아제르바이잔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며 오연지(울산시체육회)에 이어 한국 복싱에 두 번째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안겼다. 대회 여자 54kg급에는 총 4장의 출전권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임애지는 4강 진출과 동시에 별도의 준결승과 결승전 없이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 박현경 KLPGA 대세

맥콜·모나 용평 오픈 연장우승  
다승·대상 포인트·상금 선두에

박현경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대세’로 떠오를 조짐이다. 박현경은 지난 30일 강원도 평창군 버치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맥콜·모나 용평 오픈(총상금 8억원) 최종일 연장전에서 최예림을 제치고 우승했다. 둘은 3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03타로 승부를 가리지 못해 18번 홀(파5)에서 연장전을 벌였다. 첫 번째 연장전에서 박현경은 5m 버디 퍼트를 잡아냈고, 조금 더 가까웠던 최예림의 버디 퍼트는 홀을 비켜 갔다. 지난 23일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우승했던 박현경은 2주 연속 우승을 거뒀다. KLPGA 투어에서 2주 연속 우승은 2022년 이소미가 SK네트웍스·서경 레이디스 클래식과 예스오일 챔피언십을 내리 우승한 뒤 8개월 만이다. 두산 매치플레이어에서 시즌 첫 우승을 거뒀던 박현경은 이번 시즌에만 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미 상금과 대상 포인트 1위에 자리 잡고 있던 박현경은 다승 부문에서도 이예원을 따라잡아 3개 개인 타이틀 경쟁에서 선두에 나섰다. 박현경에게는 2주 연속 우승과 시즌 3승 모두 처음이다. 통산 7승을 거둔 박현경은 연장전에서만 4승을 따냈다. 7월 전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도 윤이나와 박지영을 연장전에서 제쳤다. 최민경과 이예영이 11언더파 205타로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1, 2라운드 선두 서연정은 공동 5위(10언더파 206타)에 올랐고, 작년 이 대회 우승자 고지우는 공동 7위(9언더파 207타)를 차지했다. 임희정은 공동 7위에 올라 이번 시즌 들어 처음 톱10에 들었다. /연합뉴스